지금 사찰은 '자비심' 더한 국화향 물씬

조계사 제8회 국화향기나눔전 등 눈길

조계사 '초전법륜' 테마 9일 개막
자원봉사단 집수리, 문화공연 다채
삼광사 · 통도사도 뒤이어 국화축제


조계사 국화축제 나눔전 모습. 올해는 이웃을 위한 자비행사 의미를 더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사찰은 지금 국화 장엄으로 불자와 시민들을 맞이하는 데 분주하다.

먼저 국내 사찰 국화축제의 원조격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의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는 10월 9일 8번째 문을 연다.

조계사는 10월 9일 오후 2시 40분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은 초하루 법회를 맞아 조계사를 찾는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전남 함평군과 사찰과 농촌의 상생 일환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사 국화향기나눔전에는 함평의 국화가 전시되며, 조계사 일대에서 함평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도 저렴하게 직거래로 판매된다. 또 조계사는 함평 영화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행보도 더한다.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의 테마는 초전법륜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또 전법에 나선 모습을 형상화한 국화장엄이 새롭게 선보인다.

조계사 일주문과 대웅전 사이에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전법하는 초전법륜상이 재현된다.

이밖에 지난해 선보인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수인으로 표현한 33관음수인, 큰 인기를 얻은 서유기, 코끼리와 용, 동진보살 등을 형상화한 국화장엄도 선보인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국화장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10월 19일 오후 12시 10분, 맑은소리합창단과 민요팀이 합창과 민요 공연을 진행한다. 회화나무합창단과 향무용단이 10월 26일 오후 12시 10분, 특별공연을 펼치며, 11월 4일 어린이 합창단과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공연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10월 10일 사찰음식 무료시식회와 야경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11일 제2회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현장체험 17일 중양절 맞이 국화수륙재, 18일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 21일 가족이 함께 국화꽃등만들기, 24일 제10회 채용박람회 일구데이가 진행된다. 11월 4일에는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펼쳐져 어린이들이 국화장엄 속에서 솜씨를 뽐낼 수 있다.

특히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은 집수리 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을 나눈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국화축제가 열린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도 11월 중순까지 '희망은 UP, 행복은 Together'라는 주제로 제2회 국민화합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를 열며,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도 국화장엄 등을 선보이는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신도님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속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여 년 숙원, 봉은사 미륵대불 원불 나투다

바람에 축원을 담은 오색실과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거대한 미륵대불 옆으로 3999위의 미륵원불이 모습을 드러냈다. 30여 년만의 숙원 불사가 이뤄지는 순간, 봉은사 경내에 모인 2000여 대중은 탄성을 내뱉었다.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30일 미륵대불 미륵광장에서 2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은사는 '미륵대불 원불 봉안불사점안식을 앞두고 미륵불 2,506위(총3,999위), 미륵가족불 22위(총22위). 보살입상 7위(총23위), 금강역사 2위(총2위)를 1차로 봉안하여 대중에 선보였다.

점안식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천수경, 화취진언, 목욕진언, 축원 등 의식을 진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1년도 안 되어 70% 정도 원불이 모셔지며 미륵대불 용화정토로 장엄할 수 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1만원으로 즐기는 가을 사찰여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운영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가고 한층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단돈 1만원으로 즐기는 사찰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가을 여행주간'에 1박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하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공주 마곡사 · 보은 법주사 · 순천 선암사 · 양산 통도사 · 해남 대흥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을 포함해 전국 각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01곳이 참여한다.

템플스테이는 △연꽃 컵등 만들기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즐기는 '체험형'과 자연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쉼을 찾는 '휴식형'으로 나뉜다.

참가신청은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 오후 5시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내 · 외국인 8천 명으로 참여 인원 도달 시 예약을 마감한다.



문화사업단은 이밖에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복 인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서 자신이 찍은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후 템플스테이 계정에 댓글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30명)을 증정한다.

문화사업단 측은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인지도가 높아져 2~3개월 전부터 국내외서 문의가 들어온다"며 "조기에 예약이 마감되기도 하니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사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中道 통해 현재 종교를 돌아보다

고요한소리, 10월 13일 제2회 '중도포럼'

부처님 가르침 중 핵심인 '중도사상'을 통해 현재 종교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고요한소리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도와 종교'를 주제로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고요한소리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한 중도포럼은 이번에는 중도의 길에서 현재의 종교를 돌아보는 발표와 법문이 이뤄진다.

시작은 고요한소리를 창립한 활성 스님의 발제법문으로 알린다. 주요 발표로는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이정배 목사가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 등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 대해 고요한소리는 "중도 불법의 회광반조의 정신은 자칫 종교가 빠지기 쉬운 배타적 독선성을 뿌리 뽑고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개방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루가 될 것"이라며 "제2회 중도포럼이 이 같은 보루를 구축하고 다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살만한 집'에 살 권리 보장하라"

사노위 등, 10월 3일 주거불평등 해소 오체투지

"집은 돈을 벌기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주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최근 집세 폭등으로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체투지와 달팽이 행진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미래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주거의 날'인 10월 1일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주거시민단체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정부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사노위를 비롯해 종교 · 세입자 · 청년 · 빈곤 · 주거 단체 참가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사노위는 주거권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먼저 오체투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체투지 행렬 뒤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은 인권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 플래카드, 풍선을 들고 행렬을 따랐다. 머리띠와 등에 착용하는 구조물로 달팽이를 형상화한 모습은 집이라는 짐을 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상징한다.

혜찬 스님은 "졸부들의 땅과 건물이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성한 노동자의 땀이 우대를 받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지원 기자

"에너지 '과잉' 시대, '절약' 하자"

불교환경연대, 관련 가이드북 배포

불교환경연대가 가정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10월 초 회원 및 후원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가이드북은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과 습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가이드북은 △가전제품 △식사 △장보기 △교통수단 등 분야로 내용이 구성돼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에너지 다이어트 계획 및 실천에 적극 동참한 이들을 달마다 시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19쪽 '계획하기' 란에 적은 사용량과 소감을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010-9656-1654)로 전송하면 된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우리 건강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과잉시대를 전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이어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